

## 정읍시-중국 위해시 교류협력 사업 활발

정읍시가 민선 6기 들어 중국 10대 관광도시인 산둥성 위해(威海)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연결고리로 우호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양 도시는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특히 정읍시의 요청에 따라 중국 위해시는 청·일 전쟁 마지막 해전지인 유공도 '갑오전쟁박물관'내에 정읍시 홍보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정읍시임을 알리는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정읍 알리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동학으로 맺은 인연 관광 상생 꽃피운다



중국 위해시 유공도에 있는 갑오전쟁박물관.

김생기 시장 초청 방문... 내장산 단풍나무 기증  
내장산리조트·첨단과학산업 등 투자 유치 활동  
유공도 갑오전쟁박물관에 정읍 홍보공간 조성도  
중국 관광객 유치·문화 교류 활성화 등 공조키로

### 정읍시-위해시 관광활성화 힘모은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허흥진 관광개발과장, 이갑상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위원장 등은 최근 중국 산둥성 위해시를 초청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위해시가 지난해 10월 30일 양 도시 간 관광분야 교류 업무협약 체결 후 정읍시와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해 정읍시장 등을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에서 관광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산둥반도 북쪽 끝에 있는 항구도시인 위해시는 웨이하이시(威海衛)로도 불리는 데, 명대(明代) 초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이곳에 위소(衛所)를 설치한 이후 '웨이하이'로 불리고 있으며, 청대(清代)에 위소를 폐지한 후에도 이 명칭은 이어지고 있다.

위해시는 청나라 베이양함대의 근거지였으나 1895년 청·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등 두차례나 일본군에 점령당하기도 했다. 현재 인구는 280만명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등 국내 100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연간 한국인 관광객수만 36만 명에 이른다.

### 내장산 단풍나무로 상생 협력 뿌리내린다

김 시장은 이번 방문기간 중 양 도시간 업무협약 이행사항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격려하는 데 집중했다. 김 시장은 특히 정읍시가 기증해 위해시 유공도 내에 식재한 내장산 단풍나무와 단풍나무 종자 묘목장을 둘러보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도 참석했다.

정읍시 단풍나무와 종자는 유공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내에 정읍시 내장산 단풍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정읍시의 단풍나무 기증은 정읍시의 대표 관광자원을 중국 위해시에 보급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장산 단풍을 중국 최고의 관광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생기(왼쪽 세번째) 정읍시장이 중국 위해시 갑오전쟁박물관 내 정읍 홍보공간에서 '동학혁명 발상지인 정읍'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설명문 제막식을 하고 있다.



김생기(오른쪽 세번째) 정읍시장이 중국 위해시 유공도 내 내장산 단풍나무 종자 묘목장을 둘러보고 있다.

### 청·일 전쟁-동학농민혁명으로 뭉치다

정읍시와 위해시는 동학농민혁명이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맺어진 우호 도시다.

중국은 동학농민혁명이 단초가 돼 발생한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자며 청·일 전쟁 마지막 해전지인 위해시 유공도내에 갑오전쟁박물관을 건립했으며, 박물관 내에는 정읍시를 홍보하는 공간도 조성돼 있다.

갑오전쟁박물관내 정읍시 홍보공간에서는 영상시스템(TV 2대)을 통해 정읍시에서 제공한 동학농민혁명 영상자료와 정읍시 홍보 영상물을 상시 방영하고 있다.

특히 갑오전쟁박물관측은 정읍시의 요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설명 자료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정읍시'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삽입했으며, 김생기 정읍시장의 이번 방문에 맞춰 제작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정읍시는 현재 150만여명이 관람하는 갑오전쟁박물관내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을 홍보하게 됨에 따라 동학혁명 세계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 투자 유치 등 교류 활성화 기반 닦는다

김 시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2017년 제50회를 맞는 '황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 정혜 위해시장을 비롯한 위해시 대표단의 방문을 정식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 엄립은 위해시 부시장 및 조이 위해시 관광국장, 왕경위 유공도 관리위원회 당서기와의 접견을 통해 양 도시간의 교류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상호 방문도 논의했다.

김 시장은 특히 재위해한국인(상)회를 방문해 내장산리조트 및 첨단과학산업단지 민자유치 활동에도 집중했으며, 정읍출신 기업대표가 운영하는 영상중원전기를 방문 시찰하는 한편 석영에 위해시 전지협회 이사장의 작품전시회를 관람하고 양 도시간 문화교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생기 시장은 7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문화적 공통점이 있는 양 도시간 상호교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갑오전쟁박물관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정읍시임을 알리므로써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시의 위상 정립을 확고히 하는 한편 동학혁명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동력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k@

광주 GWANGJU HEARING AID CENTE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 쌈강 다슬기 성업중!!

쌈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만으로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담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갈증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열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담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쌈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화순읍내      민면폭포      관재수만리  
쌈강 다슬기